

4.4.8 함평체험 프로젝트

4·4·8 함평체험 프로젝트는 '나비의 고장' 전남 함평군이 추진하는 하룻밤을 묵게 하는 체류형 관광전략이다. 함평의 동부에는 숲이 많고 서부에는 바다가 인접해 있다. 함평을 찾은 관광객이 숲에서 4시간, 바다에서 4시간을 보내고, 8시간은 편안하게 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함평에 오는 관광객들을 '16시간' 붙잡아 놓겠다는 것이다.

함평은 봄에는 나비축제, 가을에는 국화축제로 관광객들이 설새 없이 드나드는 관광의 도시다. 축제는 입장료 수입만으로도 행사 개최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또 관광객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 소비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영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과 비교해 관광자원이 열악한 편으로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거쳐 가는 이른바 반짝 관광코스다. 함평군은 관광객이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관광 기반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동부 쪽은 나비축제와 국화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과 인근 습지 공원, 화양근린공원을 한데 묶어 중장기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또 자연생태공원 인근에 대동제 오토캠핑장과 자연생태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용천사 권역은 3단계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주차장, 상가, 숙박촌 등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힐링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함평교와 학야교를 흐르는 함평천은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함평천 양안에 자전거 도로와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함평교와 영수교 인근 5.9ha에는 나비축제 등 축제를 연계한 시설들을 갖추고, 함평엑스포 수변공원에는 양봉 밀원수를 이용해 1.5km 거리에 밀원수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바닷가가 있는 서부 쪽에도 관광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다. 풍광이 아름다운 돌머리해변에 체류와 체험이 가능한 시설들을 잇따라 조성했다. 돌머리지구 연안 유희지에 85억원을 들여 해변 탐방로와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 탐방로를 만들었다. 올해 초에는 연면적 993㎡(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해수찜 치유센터를 건립했다. 해수찜 치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함평의 전통 해수찜 문화를 알려 해양관광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돌머리 나조를 보면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노을정원은 핑크물리화, 국화, 무늬억새, 수국, 코스모스 등 사계절 꽃 단지가 조성돼 새로운 볼거리로 부상했다. 지역 대표 휴양지인 돌머리 연안을 올해 준공한 해수찜 치유센터와 갯벌생태체험, 오토캠핑장(카라반), 주포한옥마을 등과 연계해 전남 서남권 힐링 체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함평천지길'이 함평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 일대에 조성된다. 10억원의 사업비로 오는 2022년 완공하게 된다. 주요 코스는 화양근린공원~엑스포공원~함평천에 이르는 약 5km 구간이다. 이 코스에는 나비와 황금박쥐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과 버스킹 공연장 등 공연시설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묶어 놓는다는 전략이다. '나비=함평=청정=친환경'이라는 함평의 이미지를 재창출해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



3

1 함평 나비축제 행사장 2 대한민국 국향대전 3 돌머리해안 낙조



1



2

함평천지 농특산품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